

<2018년 9월 30일 주일말씀>

주와 함께 행하라

본 문 마가복음 16장 20절

『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
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』

요한계시록 17장 14절

『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
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
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
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
이기리로다』

◎ 오늘 말씀은 “주와 함께,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.
모든 일을 하나님과 주와 함께 하면서 차원을 높여 가자.”
입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1. <주>와 ‘같이’ 행하라. 혼자서 하기 힘들다. 같이 행하라.
2. <일을 할 때>도 ‘혼자’ 하면 표도 안 나고, 힘들고, 하다가 마음도 약해진다. 여럿이 ‘같이’ 해야 일도 표가 나게 줄어든다.

3. <산을 탈 때>도 ‘혼자’ 하면 힘들다. 여럿이 ‘같이’ 가면, 오랜만에 산을 탔어도 잘 가진다. 이와 같이 모든 일도 ‘같이’ 하면 잘하게 된다.
4. 하나님은 “같이 하라.” 말씀하시고, ‘왜 같이 하라고 했는지’ 는 말씀하지 않으신다. 그 말씀대로 같이 해 보면, 혼자 할 때보다 많이 하게 되고, 안 할 것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
5. 하루는 선생이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“같이 해라. 사람들과 같이 하면, 많이 해진다.” 하셨다. 고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 같이 하니, 혼자 할 때보다 지치지도 않고, 훨씬 많이 하게 됐다.
6. <역사>라는 것은 ‘혼자’ 는 안 된다. 반드시 <주체>와 <상대>가 있어야 된다. 곧, <하나님>과 <인간>이 있어야 된다.
7. <아담과 하와>는 ‘하나님의 말씀’ 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. 아담과 하와 둘이 아무리 붙어 살고,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‘하나님의 뜻’ 이 이뤄지지 않는다.
8. <인간>끼리는 ‘육적인 역사’ 만 이루지, <하나님의 역사>를 이루지 못한다.
9. <삼위>와 <주>와 <인간>이 하나가 돼야 ‘역사’ 가 일어난다.

10. <월명동을 개발할 때>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했다.
11. 하나님과 같이 안 하면, 허점이 많이 생긴다. 고로 <할 때>는 하나님과 ‘같이’ 해야 된다.
12. <부활기>는 ‘혼자 하는 때’가 아닌, ‘같이 하는 때’다.
13. “같이 하자.” 한 말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라.
14. 선생이 1999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기에 그것이 ‘조건’이 되어 ‘온 세계와 같이 하는 역사’가 일어났다. <한국>에서만 역사를 펴고 끝났으면 한계에 처했을 것이다. 세계적으로 복음을 펴 나가니 푸짐하고, 사람들이 보고 “하나님의 역사다!” 하고 시인하고 인정한다.
15. <하나님의 일을 할 때>는 반드시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’ 해야 된다.
16. 같이 하면 잘되고, 형통한다.
17. <주체>가 있어도, <상대>가 없으면 같이 일을 못 한다. 반드시 <주체>와 <상대>는 같이 하나 되어 일을 해야 된다.
18. 같이 안 하면, 일이 안 된다.

19. <사람>끼리만 뭉쳐서 하면, 일이 안 된다. <하나님>과 같이 하고, <성령님>과 같이 하고, <성자 주>와 같이 해야 된다.
20. <섭리사>도 보면,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하나님과 같이 하고, 형제들과 같이 행한 사람들은 살아 있다. 그러나 잘난 체하고 혼자서 돌아다닌 사람들은 역시 포식자들이 채어 갔다.
21. 같이 있으면, 무게 때문에 못 끌고 간다. 고로 같이 존재하고, 같이 일도 하고, 같이 행해야 된다.
22. <하나님의 역사>는 ‘같이 하는 역사, 같이 하는 세계’ 다.
23. <구원>도 ‘혼자’ 는 안 된다. <하나님>도 혼자서는 구원시키지 못하신다. 왜? 구원받을 자가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, 할 수 없는 것이다.
24. 가령 <아이를 낳을 때>도 여자 혼자, 혹은 남자 혼자 아이를 낳지 못한다. 같이 해야 되듯이, <구원>도 같이 이루는 것이다.
25. <세례 요한>은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다.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바빴다. 그러니 결국 세례 요한은 ‘죽음의 길’ 을 갈 수 밖에 없었다. <세례 요한>이 ‘죽음의 길’ 을 가니, <예수님>도 ‘십자가의 길’ 을 가게 됐다.

26. <세례 요한>이 <예수님>과 같이 했으면,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다. <세례 요한>이 <예수님>과 같이 하지 않고,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 성경의 역사가 뒤바뀌어 버렸다.
27. <같이 하는 것>이 ‘축복’이며, ‘이상세계를 이루는 일’이다.
28. <약한 자>가 ‘강한 자’와 같이 뭉쳐서 하면 힘을 안 들어도 해지듯, 이와 같이 우리도 늘 <주>와 같이 해야 된다. <주>와 일체 되고, <하나님>과 일체 돼야 한다.
29.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,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, 그것이 <같이 하는 것>이다.
30. 요한복음 1장에도 “<말씀>이 ‘육신’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. <말씀>은 곧 ‘하나님’ 이니라.” 했다. 이 말씀대로 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, 그것이 <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>이며, <주와 같이 행하는 것>이다.
31. <주>와 같이 해야 ‘사탄’을 이긴다.
32. 혼자서는 안 되니, 항상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’ 해야 된다. 그래야 사탄을 이긴다.
33. <말씀>은 ‘화살’이며, ‘검’이다. 절대 <말씀>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함으로 철통같이 해 나가야 된다.

34. 한번은 꿈에 <흰옷을 입은 두 남자>가 나와서 그 뒤를 따라가 보니, 두 남자가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흙을 파기 시작했다. 그들이 파 놓은 곳을 보니, 그곳에 소나무같이 새파란 것이 덮여 있었다. 자세히 보니, 50m 정도 되는 큰 뱀이었다. 끝까지 파는 것을 봤더니, ‘뱀의 머리’가 보였다. 근데 머리 쪽이 아주 쪽 썩어 있었다. 두 남자는 그것을 보여 주고는 다시 뱀을 흙으로 덮었다. 꿈에 나온 두 남자는 ‘하나님의 비밀을 담당하는 천사’다. 그리고 뱀은 <섭리사에 엄청난 해를 끼친 사탄>이다. 이 사탄이 썩어서 죽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. 고로 이 꿈을 해석하면, “이겼다!” 함이다. 곧, 이 뱀이 선생도 괴롭히고, 형제들도 괴롭히고, 하늘 신부들도 괴롭혔으나, <주>가 목숨을 걸어 놓고 행하여 결국은 이긴 것을 보여 준 것이다.

35.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“그는 <그리스도>요, <만왕의 왕>, <만주의 주>이시니 이기고 이길 것이다.” 한 말씀처럼 <주>는 결국 이기고 이긴다.

<전환>

◎ 나머지 잠언을 전해 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.

36. <자기를 위한 시간>, <사람과 갖는 시간>,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갖는 시간>, <주와 갖는 시간> - 대개 이같이 네 가지로 시간을 쓰고 있다. 그러나 ‘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’에 따라 하루의 운명도, 인생 일생도, 그리고 영원한 영의 운명까지

지 기울어진다.

37. 하고 싶어도 <하고자 하는 마음>이 약해서 못 한다.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“너희 마음이 약하다. 너희가 조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다.” 했다.

38. 의심이 가면, 확인해라.

39. <확인>은 ‘육’ 으로도 하지만, 영계에서 ‘영’ 으로도 한다.

40. 혼자서는 어려워서 안 되는 것도,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하면 해진다. 꼭 여럿이 해라.

41. <상대>가 있어야 ‘하기 어려운 것’ 도 하게 된다.

42. <상대>가 없으면 안 된다. <상대>가 있어야 ‘이상세계’ 를 이룰 수 있다. 하나님은 이같이 세상을 창조하셨다.

43. <혼자 할 일>은 혼자 해야 할 수 있다. <많은 자들>이 해야 될 일이라면, 상대가 많을수록 해진다. 그러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하여라.

44. 항상 ‘주와 함께, 삼위와 함께 행하기’ 다. 명심해라.

45. <주>는 ‘네 육에게도, 영에게도 생명체’ 다.

46. <하나님의 일>은 혼자서도 못 하고,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못 한다.
47. <하나님의 일>은 혼자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. 하나님과 ‘같이’ 해야 된다.
48. <하나님>이 끼지 않으면, 거기에는 역시 육체 덩어리만 굴러다닌다.
49. <하나님>이 꼭 껴야 된다. <주>만 껴도 안 된다. <하나님>이 꼭 같이 껴야 된다.
50. 삼위는 ‘영원한 존재자’ 이시다. 고로 삼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영원함이 존재할 수 없나니, 이를 깨닫고 행해야 되느니라.
51. 같이 할 때 같이 해라.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, 성령님도 그 위에 감동으로 역사하신다. 철저히, 확실하게, 완벽하게 행하여라. 완벽하게 알고 행하기다.
52. <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없을 때>에는 사탄을 근본적으로 이기지 못한다. <흑암이 연속되는 기간>이다. 그때는 메시아도 안 보내고, 사사도 안 보내도, 선지자도 안 보낸다. <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역사>는 ‘흑암 기간, 암흑 시대’ 다.
53. 항상 주와 함께 행하여라.

54. <주>와 떨어져 있으면, 죽은 것이다. 같이 안 하면 죽은 것이다.

55. <아담과 하와>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었느니라.

56. <혼자>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라.

57. (하나님) 같이 할 때, ‘순간의 기회’를 놓치지 말고 하여라.

◎ 마지막 잠언까지 모두 전해주었습니다.

◎ 어려운 일들은 다 끝났으니,
이제는 행하면 행하는 대로 표가 납니다.

월명동도 옛날에는 돌을 몇 트럭씩 가져와도 표도 안 났지만,
이제는 ‘하나’만 뒤도 표가 확 납니다.

왜요? 다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.

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대로
<신앙의 표>가 확확 납니다.

그러니 오늘 말씀한 것을 아예 뺏속에 넣고 행하기 바랍니다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